하이브리드 카 무한경쟁 시대

초 고유가 시대 … 자동차 업계 사활 건 싸움

초 고유가시대를 맞아 하이브리드카(Hybrid Car)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세계 자동차업계는 고유가와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라 하이브리드카 등 연비 좋은 친환경차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 중인 하이브리드카는 모두 일본산. 하지만 현대·기아차 등 국내 업체도 하이브리드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가 고공행진에 희색**=최근 세계 자동차업계의 화두는 단연 하이브리드카 경쟁이다. 누가 더 연비가 좋고 값싼 모델을 먼저 내놓느냐에 따라 시장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도요타는 최근 유가가 '고공행진'을 벌일수록 희색이 만연하다. 1990년대부터 친환경차 개발에 본격 나선 덕분에 하이브리드카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이다.

폭스바겐 '골프 TDI' 하이브리드

현대 '베르나' 하이브리드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카의 판매 호조를 앞세워 지난 6월 미국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판매 1위를 차지했다. 도요타의 대표적 하이브리드카 모델인 '프리우스'는 지난해에만 43만대 이상 팔렸다. 최근엔 고유가에 힘입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을 만큼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혼다 역시 최근 세계 최초로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나오는 전기에너지로 모터를 돌리는 4인승 수소연료전지차를 개발해 대량 생산 체제를 갖췄다.

그동안 중·대형차만 집중 개발해온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빅3'도 최근 하이브리드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산차 업체도 하이브리드카 개발 가세**=현대·기아차는 1995년 하이브리드카 연구를 시작해 2004년 '클릭' 하이브리드 50대를 정부에 공급했다.

이후 '프라이드'와 '베르나' 하이브리드를 개발해 올해까지 모두 2천400여대를 정부기관에 납품했다.

렉서스 'LS600hL'

도요다 '하이렌더' 하이브리드

현대·기아차는 다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LPG(액화석유가스) 엔진에 혼다 방식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접목한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내년 7월 출시키로 했다. 1년에 2만㎞를 달린다고 가정했을 때 가솔린 엔진은 280만원의 유류비가 들지만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120만원 수준이라는 게 현대·기아차의 설명이다.

국내 기술의 강점은 리튬 배터리에 있다. 니켈-메탈 배터리는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가볍고 충전 용량이 큰 리튬 배터리로 옮겨가는 게 요즘 추세다.

이와 함께 현대·기아차는 2010년 독자 개발한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쏘나타'급 이상에 탑재해 북미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모터를 하나만 쓰더라도 동력 전달에 전혀 문제가 없는 방법을 찾아냈다. 이 경우 연비 개선 효과가 50~70%에 달하는 데다 공간활용 면에서도 도요타에 앞선다는 평가다.

쌍용차는 디젤엔진의 연비를 30% 이상 추가로 향상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디젤-하이브리드 기술을 개발 중이다.

◇**혼다 '시빅' 연비 최고**=혼다의 '시빅' 하이브리드는 국내에서 판매중인 차량 가운데 연비가 가장 좋은 차로 꼽힌다. ℓ당 연비는 23.2㎞로, 경차보다 연비가 6~7㎞ 높다. 고유가 시대에 하이브리드카 만한 대안이 없는 셈이다.

'시빅'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3천390만원. 배기량이 1,339cc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비싼 편이다.

반면 '시빅' 휘발유 모델은 1,800cc 가격이 2천590만원, 2,000cc 가격이 2천990만원이다. 하이브리드 모델에 비해 400만~800만원 가량 차값이 낮다.

하지만 연료비 차이는 크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1년간 1만6천㎞ 주행할 때 기름값으로 총 13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휘발유 모델의 경우 연비가 ℓ당 13.3㎞인 1,800cc는 229만원,11.5㎞인 2,000cc은 265만원이 들어간다. 하이브리드카를 타면 연간 98만~133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중인 하이브리드카는 '시빅' 하이브리드와 렉서스의 'GS450h', 'RX400h', 'LS600hL' 등 네 종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국내 하이브리드카 판매
지난해 3배 급증

고유가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 국내 하이브리드카 판매량이 1년 전보다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에서 판매된 하이브리드카는 343대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27대)에 비해 2.7배 늘어난 것으로, 고유가의 여파로 고연비 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국내 자동차시장의 경우 하이브리드카 모델이 지난해 상반기 2개에서 올해는 4개로 늘어난 것도 차 판매 증가에 한 몫을 했다.

국내 주요 하이브리드카

제조사	모델	배기량(ℓ)	판매가(만원)	출시
렉서스	RX400h	3.3	8천	2006. 9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1.3	3천390	2007. 2
렉서스	LS600hl	5.0	1억8천~2억	2007. 10
	GS450h	3.5	8천430	2008. 6
현대차	아반떼 LPI	1.6	2천초반	2009. 7
도요타	신형 프리우스	1.5	3천초반	2009 하반기
	캠리 하이브리드	2.4	4천초반	2010 상반기

렉서스는 올해 188대의 하이브리드카를 판매했다. 지난해 상반기 1개 차종으로 58대의 하이브리드카를 판매했지만 올해는 모델을 3개로 늘려 3배 이상 판매가 늘었다.

렉서스는 지난 2006년 9월 SUV(스포츠 유틸리티차량)인 'RX400h'를 선보여 국내에 하이브리드카 시대를 열었다.

이어 지난해 10월 최고급 대형세단 'LS 600hL'을 출시한 데 이어 올해는 스포츠세단 'GS450h'를 내놓는 등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도요타는 이들 렉서스 3개 모델 외에 내년 하반기에는 '프리우스'와 '캠리' 하이브리드 모델을 들여올 방침이다.

혼다의 하이브리드카 판매도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시빅' 하이브리드 판매가 155대에 달하면서 지난해 상반기(69대)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하이브리드카** =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이용해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늘려준다.

내연기관은 보통 저속 구간이나 가속 구간에서 효율이 좋지 않은데, 이때 전기모터의 힘을 이용해 전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배터리는 감속 구간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회수해 저장하고, 정차 때는 엔진을 꺼버리는 등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한다.